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 팔 걸었다

전담조직 신설 지원 본격화

전남신보 보증·이자 3% 보전

200명에 홍보비 30만원씩 지급

마음 건강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완도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지난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군에 따르면 통계청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 지역 소상공인은 4541개 업체로 전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1만 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구는 2022년 9월 기준 4만 7830명으로 소

상공인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경영 안정 지원, 복지, 단체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융지원 정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산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출연하는 특례 보증을 실시하여 용자를 지원하고, 받은 용자금의 대출 이자 3%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지난 5년간 3102개 업체가 776억원의 용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영 안정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타 지자체보다 고령의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수수료, 배너 광고 등과 현수막, 신문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비를 200명에게 최대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2023년 부터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000곳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업체당(완도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만 해당) 최대 30만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복지 사업은 쉽지 않아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마음 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3기에 걸쳐 추진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을 월 2만 원씩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지원 전담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경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안 내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소상공인과 소통을 통해 향후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지난 14일 영암군 대불공단에서 현대중공업 한영석 부회장과 안광현 사장, 현대삼호중공업 김경관 대표이사, 대한조선 박인권 부사장, 우승희 영암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엔진공장 개소식이 열렸다.

## 현대엔진 대불산단 공장 개소 선박엔진 생산

이중연료 엔진 특화 생산설비 구축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엔진(유)이 최근 영암 대불산단에 엔진공장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박엔진 생산에 들어갔다.

현대엔진 대불공장은 기존 바르질라현대엔진공장의 시설을 보수하고 이중연료 엔진에 특화된 최신 생산설비를 새롭게 구축, 연간 100여대의 '힘센엔진'을 생산할 수 있다.

힘센엔진은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중형엔진으로, 육·해상 발전은 물론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전 세계 중형엔진 시장에서 약 2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엔진은 최근 주문이 늘고 있는 3900마력급

부터 3만6000마력급까지 총 17종의 최신 힘센엔진을 대불공장에서 생산해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국내외 조선소 등에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엔진이 생산하는 힘센엔진은 전량 디젤연료와 LNG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향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호 현대엔진 대표는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고객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ESG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 영광군 작은영화관

하루 6회로 상영횟수 확대

영광군 작은영화관이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영광군은 지난 5일부터 매일 4회차(오전 1회, 오후 3회) 운영해 오전 6회차(오전 2회, 오후 4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영광작은영화관은 2개 상영관에 객석 109석과 매점,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다.

영광작은영화관은 이전에는 영화를 보기 위해 인근 광주광역시로 나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따랐으나 지금은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동시개봉 최신영화를 볼 수 있어서 주민들의 여가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10개 읍면에 설치된 디지털사이니지(홍보디스플레이), 영광군 카카오톡과 밴드를 통해 최신영화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영광작은영화관을 매력있는 문화공간, 행복가득한 영광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작은영화관은 도시지역 일반영화관에 비해 50% 수준의 관람료(2D 6000원, 3D 8000원)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정기휴관일(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상영하며, 상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항구축제 관람객들이 경매체험행사에 참여,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 목포항구축제 모두의 축제로 거듭났다

3년만의 대면...가을낭만 선사

청년파시로드 퍼레이드 등 인기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린 '2022 목포항구축제'가 가을낭만을 풍성하게 선사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목포항구축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가을 파시 항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열리지 못했던 목포항구축제는 3년 만에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지정 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축제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

목포항구축제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 시장인 '파시'를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항구축제이다.

올해는 파시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본래 취지는 부각하면서 새로운 콘텐츠와 공간 구성으로 젊은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선보이며 전연령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파시'는 항내 바지선 위 전문 중매인이 진행하는 선상 경매와 프리진 무대 위 파시경매, 항구경매 등으로 경매 횟수를 대폭 늘렸으며, 화려한 경매 퍼포먼스는 물론 질 좋은 수산물을 싼 값에 구입하기 위한 눈치게임이 펼쳐지는 등 관람객의 열띤 참여 속에 성황을 이뤘다.

또 경매로 구입한 수산물을 즉석에서 맛보는 수랏간 회터·구이터·요리터와 직접 구워먹는 구이터 등은 오션뷰를 감상하며 항구의 정취를 즐기곤 하는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올해 새롭게 시도한 '청년파시로드 퍼레이드'는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 항구'를 표현해 눈길을 모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공간 배치는 '미래로 향하는 젊은 항구'의 이미지를 선보였다.

이 밖에 '청년호! 새로운 항해'를 주제로 펼쳐진 개막식 주제공연을 비롯해 '청년 디스코파티', '청년 하이볼 페스티벌', '파시불꽃&나이트쇼' 등도 MZ세대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해남군, 3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 수상

100만 조회수 달성 등 성과 인정

해남군이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12회 대한민국 SNS대상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해남군은 2019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전국최고 수준의 SNS 홍보성과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2019년 최우수상에 이어 2020년부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매년 SNS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한 기관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기업과 공공부문 총 81개소에서 공모에 참여했다.

해남군은 군정역점과제로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강화를 추진 페이스북과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군정시책과 해남의 역사와 문화 관광, 특산물 등을 알려나가고 있다.

해남의 매력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은 공무원이 직접 제작, 출연하는 홍보콘텐츠를 발굴해 영상으로 제작, 개설 2년여만에 100만회 조회수를 달성했다.

또 페이스북 팔로워는 3만 6000명을 넘어서며



전남도내 군단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SNS 캐릭터 '땅콩이, 희망이' 이모티콘을 제작해 무료배포하는 한편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등 영상콘텐츠 제작 폭을 확대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SNS 기자단과 SNS 스토리텔러,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7기부터 SNS를 통한 군민소통을 역점 추진해온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맞춰 전국에 해남을 알리고 군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SNS마케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